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보도자료		 광복 80 빛나는 발걸음, 새로운 길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2쪽
배포일시	2025.9.15.	담당부서	영화/문화산업	
연락처	323-936-7141(x116)/ lila@kccla.org	담당자	Seonji Jang	

한글날 기념, 우리 말의 힘을 되새기다

- LA한국문화원 영화 <말모이> 특별 상영회 개최 -

- ▶ 행사명 : 광복 80주년 기념 ‘한국영화로 보는 광복 이야기’, 영화 <말모이> 상영회
- ▶ 일 시 : 2025년 10월 8일(수), 18:30
- ▶ 장 소 : LA한국문화원 아리홀 (5505 Wilshire Blvd, LA, CA 90036)
- ▶ 주최/주관 : 주LA 한국문화원
- ▶ 행사/취재문의 : 장선지 실무관, 323-936-7141(x116)/lila@kccla.org

주LA한국문화원(원장 이해돈)은 오는 10월 8일 오후 6시 30분, 문화원 3층 아리홀에서 한글날을 기념하여 영화 <말모이>(2019, 감독 엄유나)의 특별 상영회를 개최한다.

한국문화원은 올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영화로 보는 광복 이야기’ 영화 상영회 시리즈를 기획하였으며,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적 사건과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을 조명하는 한국영화 6편을 순차적으로 상영하고 있다. 이번 상영회는 제 579돌 한글날을 맞아, 우리 말과 글의 소중함을 돌아보기 위해, 특별히 영화 <말모이>를 선정하였다.

영화 <말모이>는 1940년대 일제강점기, 우리 말과 글이 금지되던 시대에 조선어학회가 사전 편찬을 위해 모은 ‘말모이 원고’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글을 모르는 한 인물과 조선어학자들이 함께 사라져가는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과정을 그리며, 언어가 곧 민족의 정체성과 정신임을 보여준다.

<말모이>는 총칼로 싸운 독립운동만큼이나 치열했던 ‘언어를 지키려는 투쟁’을 감동적

으로 담아내 관객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특히, 한글날에 맞춰 상영되는 이번 행사는 오늘날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한국어가 지닌 역사적 의미와 무게를 다시금 돌아보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해돈 문화원장은 “<말모이>는 나라 없는 시대에도 우리말을 지켜내고자 했던 이들의 용기와 헌신을 보여준다”며 “한글날을 맞아 이 영화를 통해, 한국어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민족의 정신과 정체성을 지탱해온 힘이라는 점을 다시금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오는 11월 19일에는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기를 기념하여, 그의 삶을 조명한 <동주>(2016, 감독 이준익)를 상영한다. 이를 끝으로 한국문화원의 ‘한국영화로 보는 광복 이야기’ 시리즈는 지난 3월부터 이어온 여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모든 영화 상영은 주LA한국문화원 아리홀에서 저녁 6시 30분에 진행되며, 한국문화원 웹사이트(www.kccla.org)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관람이 가능하다.

(붙임 1) <한국영화로 본 광복이야기>, 영화 <말모이> 포스터. /끝/